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안주*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필리핀대학마닐라	기간	2017. 1. 14(토) ~ 2. 10(금)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우리 학교 학생들이 공부한 어학원은 수빅에 위치해있고, 대학은 마닐라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학원 규모는 5층 건물에 각 층마다 수업이 진행되는 교실과 기숙할 수 있는 방들이 있습니다. 순천향대학교 학생들은 5층에서 기숙했고, 방은 3인 1실, 대부분 같은 학번끼리 사용했습니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 8시간동안 수업이 진행됩니다. 엄청 타이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일정이지만 하다보면 금방 적응되고 재밌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날 레벨테스트(필기시험과 스피킹테스트)를 보고 5개반으로 분반을 했습니다.</p> <p>3개의 1대1 수업과 5개의 그룹수업으로 진행됩니다. 1대1 수업에서는 impact issues-여러 주제로 선생님과 토론/핵심패턴-회화에서 중요한 핵심패턴 공부/Voca-단어 수업으로 이뤄져있고, 그룹수업은 멀티미디어/문법/스피킹/reading/CNN listening 수업으로 이뤄져있습니다.</p> <p>대부분의 선생님들 너무 친절하고 좋습니다. 과제는 보통 내주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부담을 느낄까봐 보통 선생님들하고 수업시간 내에 같이 합니다.</p> <p>수업 준비에서는 특별히 크게 할 것은 없었지만, 저는 선생님들에 따라 준비해갔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문제를 같이 풀어 나가는데 같이하면 이해도가 떨어질 것 같아서 미리 공부하고 문제를 풀어갔고, 임팩트 이슈로 토론 수업을 할 때에는 원활한 스피킹을 위해 그 이슈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나, 미리 나의 생각을 영어로 정리해 본 후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확실히 준비한만큼, 공부한만큼 얻어가는 게 많습니다.</p>

Activity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p> <p>-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p> <p>첫 주엔 친목을 위해 어학원 풀장에서 바비큐 파티를 했고, 둘째주엔 리조트, 셋째주엔 요트를 타러 갔습니다. 이 활동들은 토요일에 이뤄졌고, 주말엔 자유시간을 갖게 됩니다. 보통 비치를 가거나 쇼핑, 마사지, 네일을 받으러 갑니다. 수영복은 챙겨 오시면 좋지만 없어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공식 액티비티 활동에서는 밥값을 제외하고 학원에서 제공해주셔서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고아원 봉사활동도 있습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한국에서 겨울일 때, 필리핀은 건기여서 비가 많이 오지 않고, 한국 늦여름 정도의 날씨입니다. 드물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할 때가 있으니 얇은 겹옷 챙겨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평일에는 보통 수업하느라 어학원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어학원이 에어컨을 작동시켜 춥습니다. 감기 걸린 친구들도 있으니 유의하세요. 저녁 때가 되면 모기도 많이 있습니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필리핀에 있을 때, 안 좋은 뉴스들을 많이 접했지만, 직접적으로 위험하다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마닐라는 위험하다고 많이 들었지만 수빅은 비교적 안전한 곳이고, 늦은 밤에 혼자 교통수단을 이용하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p>
숙소	<p>학교기숙사()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어학원 내부 숙소)</p> <p>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숙소 시설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방마다 침대 3개, 책상 3개, 옷장 3개, 서랍장 3개가 있었고, 빨랫바구니와 세면대, 미니 냉장고, 화장실이 안에 있습니다. 다른 방은 안 그랬었는데 제가 썼던 방은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았던 적이 몇 번 있어서 샤워기를 두 번 정도 교체했습니다. 찬물로 샤워한 적도 몇 번 있어서 힘들었지만 그것 말고는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많이 습합니다. 너무 많이 틀어놓으면 추워서 감기걸리니 조심하세요. 휴지는 없어서 사서 사용해야합니다.</p>
식사	<p>학교식당() 홈스테이 () 외부식당 () 기타(어학원 내부 식당)</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아침,점심,저녁 보통 다 어학원에서 먹었습니다. 식당은 어학원 옆 카페테리아 건물에 있습니다. 한식으로 나오는데 보통 학생들의 입맛에 다 맞아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외출하는데 그 때는 밖에서 먹기도 합니다. 아침은 식빵,샐러드,핫케익,과일,누룽지 등 서양식과 밥,김치,소세지,계란,국 등 한식으로 번갈아 가며 나오고, 점심, 저녁은 수제비, 비빔국수, 부대찌개, 라볶이 등 다양한 음식으로 더 맛있게 나옵니다.</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p> <p>저희 학교 학생들은 보통 4,5층에서 수업을 받습니다. 5층에서 생활하니</p>

	준비하고 바로 나오면 교실이 있어 이동시간 1분도 안 걸립니다. 시내 교통은 에프비를 타고 20-25분 정도 나가야 합니다. 한 번 가는데 보통 10-13페소가 듭니다. 택시는 늦게 들어올 때 이용했습니다. 120페소 정도 내고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	735,400	출국 전 사전 납부
현지에서 사용한 비용	400,000	40만원 환전=340달러
합계	1,135,400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p>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p> <p>저는 필리핀 가기 전에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학과에서 진행되는 공모전 활동을 하느라 영어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 동안 단어라도 좀 보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거기 가면 의사소통 될 정도의 귀는 트이는데 말을 할 때 어휘력이 부족해 생각보다 다양한 단어들을 활용하지 못합니다. 머리는 아는데 입 밖으로 내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충분히 공부하고 가면 더 좋겠지만 시간이 없다면 단어라도 많이 외워가는 걸 추천합니다.</p> <p>준비물은 미리 체크해서 구매하는 게 좋습니다. 전 다른 건 다 챙겨봤는데 수영복을 챙기는 걸 깜빡해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활동하는 거에 지장은 없지만 있으면 좋습니다.</p>
--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처음 출발할 때, 걱정이 됐습니다. 대학 입학 후에도 영어 관련 과목을 매학기 들었지만 그게 제 영어실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이 이렇게 필리핀에 가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새벽에 도착해서 짐을 풀 때, 달력을 책상에 올려놓으며 4주를 어떻게 버티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짓말 같이 4주가 금방 지났습니다.

언어를 공부하는 것을 좋아해 영어도 좋아하지만 좋아하는 만큼 성과를 거둔 적이 없어 언제나 큰 숙제로 느껴졌던 영어가 생활이 되니 재밌게 느껴졌고, 더 잘하고 싶다는 열정도 생겼습니다. 남의 시선도 많이 의식하고 부끄럼도 많아서 처음엔 말도 잘 못하고, 누가 날 비난하거나 안 좋게 생각하면 어찌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수업하면서 자신감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걱정하면서 갔는지.. 사실 4주 동안 수업하고 생활한다고 해서 못하던 영어가 갑자기 확 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선생님들의 말을 알아듣는 내가 보이고 배운 언어를 사용하는 내가 보일 때 더 뿌듯하고 열심히 해야겠다 마음이 듭니다.

그 마음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수업 중간 중간, 영어실력이 확실히 늘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괜히 주눅 들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많이 늘었는데 난 그대로인 것 같아서요..

게다가 첫 레벨 테스트에서는 12등을 했는데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에서는 14등을 했습니다. 비록 오르지도 못했고 유지하지도 못했지만 이 시험, 이 점수 하나로 내 실력을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마다 배우는 속도가 다르기도 하고, 선생님들과 대화를 하며 영어 이외의 더 많은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점수와 등수에 연연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건 다녀온 이후라고 생각합니다. 가져온 열정과 마음을 얼마나 실천으로 옮기고 더 향상시키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선생님들과 연락을 주고 받고 있고, 제 나름의 계획을 세워 영어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필리핀 단기 어학연수는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경험이었고, 올해가 얼마 가지 않았지만 2017년에 가장 잘 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첫날. 레벨테스트 이후 수빅 투어 때.</p>	<p>어학원 풀장에서 친목 바비큐 파티 후 물놀이</p>
	
<p>고아원 봉사</p>	<p>암바야 코브 - 둘 째 주 액티비티</p>
	
<p>요트 - 셋 째 주 액티비티</p>	<p>졸업식</p>